



머리글

송정섭 시몬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사랑 때문에, 그 길에 뛰어든 사람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루카 2,48) 성전에서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리셨던 성모님은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셨을까요?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으셨는데, 그 사흘 동안 성모님은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에게 화제가 되었던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에서도 그러한 어머니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은 부모로서 자식에게 못 해주는 것 같아서 미안해하고,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상처 주는 말만 하는 것 같아 죄송해합니다. 특히, 어린 자식을 잃어버린 후 평생을 자책하며 살아가는 어머니의 모습이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민원실에서 가슴을 치며 접견을 기다리는 부모님들의 모습, 자책하며 괴로워하시는 교정사목 가족들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 자식의 역할을 잘하지 못했다며 후회하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부모가 되어보면서 부모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자식으로 살아가면서 자식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라며 때로는 부족해 보이더라도 숭고한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부모님과 자식들에게 위로를 건네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느님으로부터 선물처럼 주어진 삶을 처음 살아가는 중입니다.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보는 것도, 누군가의 자식이 되어보는 것도,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보는 것도 다 처음입니다. 처음이기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도 우리의 그러한 서투름을 탓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너는 여전히 좋은 부모이고, 좋은 자녀이고, 좋은 신앙인이며,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무언가 서투르고 실수가 많은 사람을 보며 ‘아마추어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마추어(amateur)’라는 말의 어원은 ‘사랑하다(amare)’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즉, 서투른 사람이라기보다는 ‘사랑 때문에 그 길에 뛰어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사랑 때문에 주님의 길로 뛰어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부족해 보이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스러지지 않습니다.”(1코린 13,8)

성내동성당, 서대문성당 후원회원 모집 미사

<성내동성당>



<서대문성당>



3월 15일(토)~16일(일) 성내동성당에서 3월 29일(토)~30일(일) 서대문성당에서 후원회원 모집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교정사목의 신부님들은 강론을 통하여 불우수용자 가족의 병원비 및 미성년자들의 학업 도움을 지원해 주는 사연 등 교정사목의 활동을 소개하며, 감옥에 갇힌 이, 범죄 피해자와 출소자들에 대한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로써 많은 신자분께서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후원 모집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성내동성당과 서대문성당 신부님과 수녀님, 신자분들, 더불어 후원회원이 되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사를 전합니다.

목동성당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후원금 전달식



3월 31일(월) 목동성당 '지속적인 성체조배회'에서 후원금을 모아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 전달해 주었습니다. 보내주신 귀중한 후원금은 범죄 피해자 가족과 수용자와 가족, 출소자와 가족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64차 정기총회 및 월례 미사



4월 7일(월) 가톨릭회관 3층에서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64차 정기총회와 월례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이사, 감사를 비롯한 정회원, 후원회원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2024년 활동 및 결산과 2025년 예산에 대한 의결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4월 2일 창립 55주년을 맞이하여, 10년 동안 봉사해 주신 4명의 장기봉사자에 대한 감사를 전하며 감사장과 감사초 전달식과 신임 대표봉사자의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장기간 헌신해 주신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수용자와 출소자, 피해자 가족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희생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첫 집회를 회상하며

김려원 멜라니아_ 서울동부구치소 여사 봉사자

생소하고 낯선 장소에 긴장한 탓일까? 단체로 덩달아 화장실을 다녀오고, 교도관을 따라 육중한 쇠창살 문을 통과하고 밝은 미술품과 자갈한 식물화분이 있는 복도를 따라 가면서 수감자를 찾는 제 시선은 경계심을 풀지 않고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처음으로 수감자분들을 만났습니다.

TV에서 봤던 짙은 회색 수감복이 아니라 화사한 밝은색의 수감복을 입은 수감자들을 보는 순간 긴장감이 살짝 풀리면서 속으로 깊은 한숨이 쉬어졌습니다. 살짝살짝 수감자들의 얼굴을 훑쳐보며 나이를 가늠해보기도 하고 특별하지 않은 평안한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미사를 함께 하고 첫 집회가 끝날 무렵에는 심신이 평정심을 찾은듯하였고 떡을 나누어 주며 작별 인사를 나눌 즈음에는 제 생각도 보였습니다. 오늘 만난 이분들이 건강하기를, 평안하기를, 한 송이 꽃이 작은 위로가 되기를, 또 생활 중에 기도문과 경문의 어떤 단어들이 불쑥 떠올라주기를, 약소한 간식으로 힘 내시기를 바라는 저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다행한 마음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결정의 순간에 각자의 방식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매스컴을 보면 잘못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담장 밖에 사는 우리의 삶 속에도 하마터면 발이 미끄러지고 걸음을 헛디딜 뻔한 순간순간이 있었을 터인데, 그만큼 저희에게 신의 가호가 컸던 것임을 깨닫습니다.

찰나의 순간 잘못된 선택(유혹)으로 사회적 약자가 되어 담장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잘 살고 싶었고 열심히 했을 수감자들, 지금은 몸을 가두어 바꿀 수 없는 정해진 많은 요소 안에서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절망감과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자유 없는 닫힌 공간에서 일상을 살아내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분의 자녀였고, 누구의 부모였고, 형제들이었고 우리의 이웃이었던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개입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갖고 살아가듯이 그분들의 삶에서도 예수님의 일 하심이 진행 중임을 믿습니다.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 새로운 길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견디어 내기를 믿고 바라며 일상 중에 수감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교정 봉사를 하면서 마치 저는 죄인이 아닌 듯한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저 자신을 보고 부끄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형제 눈 속의 티를 보느라 저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교정 봉사 초대에 기쁘게 감사드립니다.

쓸모없는 지푸라기들을 물어다가 집을 짓는 제비처럼 저희의 영혼을 도닥이며 보살피시는 시몬 신부님과 새로운 봉사자를 따뜻하게 맞아 함께 해주신 동부여사 봉사자분들의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00 _ 기쁨과희망은행 창업대출자

저는 저만의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는 과정이 즐겁고, 누군가 시키는 일보다 제가 주도적으로 할 일을 정의하며 일할 수 있어서 창업이 적성에 맞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더 편안함을 드리고 제 가족에게 티전을 마련해주기 위해 직장인으로 일하는 안정정보다 창업했을 때 더 큰 금전적 보상을 취할 수 있기에 이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일했던 저만의 전문성과 강점과 개성을 찾아 현재 저는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드렸을 때 고객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끼며 단기적으로 목표를 수립하고 성취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다만,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며, 노동집약적이라 업계 내에서 인정 받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소 6개월여 전부터 일주일에 1~2권씩 관련 서적을 읽었습니다. 경영부터 마케팅, 세일즈 등등 유관 분야의 서적을 닦치는 대로 읽으면서 노트에 사업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부터, 회사 경영은 어떻게 할지, 자금 운용을 어떻게 할지 등등 하나부터 열까지 상상하고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사실 실제로 생각처럼 이루어진 건 거의 없지만, 그때 막무가내로 쌓았던 지식과 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자신감 있는 태도로 솔직하게 진정성 있게 제시하면 고객이 선택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같은 매물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었지만,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장비나 소프트웨어 구입 등 초기 비용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사무실이나 차량도 필요했습니다. 기쁨과희망은행 대출이 크나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초기에 클라이언트를 구하는 영업이 가장 어려웠고 지금도 새로운 클라이언트 발굴과 계약 유지가 가장 어려운 듯합니다. 우선은 할 수 있는 일, 닿을 수 있는 회사부터 맨땅에 헤딩하듯 발굴했습니다. 그렇게 경험을 쌓으면서 조금씩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작은 회사이고 어려움도 있지만, 클라이언트는 많이 늘어나서 조금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갖춘 상태입니다. 풀타임 및 파트타임 직원들을 고용하여 자동 판매되는 상품이나 콘텐츠를 늘려 사업을 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마케팅이란 자격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진입장벽이 낮아 보여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상당량의 업무와 진심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 자기 계발 욕구가 있지 않다면 금방 한계를

느끼게 될 업종입니다. 직장인은 회사가 요구하는 업무를 하면 되지만, 창업자는 본인이 직접 고객을 만나고 응대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진심으로 서비스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창업보다는 취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창업하게 되면 휴가도 없고 10년 동안은 일과 삶의 균형은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퇴근 후와 주말에 내 시간을 갖는 게 무척 중요하다면 역시 취업이 더 나은 선택지입니다.

전공자도 아니고 직업을 여러 번 바꾸었는데, 지금 하는 업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 내심 뿌듯합니다. 좌충우돌 갈팡질팡 살아왔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이 모두 결국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지금처럼 자신 있게, 진심으로 임하면 무슨 문제든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가족을 위해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가족이라는 마음의 중심이 있으니, 무엇도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요즘 정부지원사업에서는 성장성을 너무 많이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외부 투자를 유치해 세계로 뻗어나갈 혁신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이 분명 장점도 있지만, 학벌이나 배경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관측됩니다. 저소득 창업자에 대한 지원이나 풀뿌리 산업을 발전시키는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과희망은행 창업자금 지원은 제가 제2의 삶을 살고자 도전하는 데 있어서 단비와도 같은 소중한 마중물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실행 받는 모든 과정에서 따스한 시선과 진심 어린 공감, 위로를 받을 수 있어서 진심으로 치유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얼어붙어 있던 마음에 응어리가 풀린 덕분에 더 자신감 있게 사회생활에 임하게 되고, 저도 더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며 나누고 환원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생기게 된 거 같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미예우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주님께 찬양을 드리모여 영광을 돌립니다.

사회교정 사목위원회장님께 물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2월 5일자 편지로, 루도비코 신부님으로부터 다른 소임지로 인사이
동 되신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새로 소임을 맡으시어 위원회를 꾸려가게
되신 신임 회장님께 인사드리고자 편을 들었습니다.

이번 달에도 보내 주신 후원금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앙을 초월하여 문제를 깨닫고 계신 사회교정 사목위원회 모든 분들께 진
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구교도소) 수용 중인 사형수 []입니다.

셋을 두 없는 죄인이 되었지만, 남은 여생은 부끄러지 않게 보내려고 화선
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중·고등 과정을 재정으로 마치고 과
학기원을 독학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며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공학, 전기 전자공학, 에너지공학, 환경공학 분야에 충직한 자료 내용과
같이 20건의 발명특허출원을 하였습니. 열악한 이곳에서 공부하고 연
구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심시박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 끈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하여 위원회에서 보내 주시는 돈이 참으로 감사하기에
한푼도 허투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되
기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화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회장님께 2개월 지의 소식을 전하모여 감사 편지를 드릴
것을 약속 드리모여 오늘은 짧게 줄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모여 행복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24. 4. 12 [] [] 올림.



To.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안녕하세요. 저는 [redacted] 이에요, 벌써

2025년 4월이에요. 그동안 건강하게

지내셨어요? 저는 후원지님 덕분에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영어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항상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점 날씨도 따뜻해지고 있는데 항상

이런 날씨처럼 좋은 일만 가득하시면

좋겠어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번 부활절도 미소 가득한 2025년 보내세요.

2025년 4월 6일

- [redacted] 올림 -

To.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자님들께

안녕하세요. 부활 축하드립니다!!

저는 올해 중학교에 들어간 [redacted] 세례녀입니다.

저를 위해 학원비를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영어학원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 1월에 끝낸 어학연수를 다녀와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dacted] 올림 -

※ 대구에 있는 교정시설에서 사형확정자로 생활하며 '바보의 나눔 지정 기탁'으로 매월 영치금을 지원받는 형제님과 보육원에서 생활하며 수용자 가족 지원을 받는 자매들이 보내는 감사 편지입니다. 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6월 월례 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일시 : 2025년 6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교정사목 휴대폰 번호 : 010-3732-5093

● 행사 알림

- 5월 12일(월)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야외미사 / 춘천가톨릭회관
- 5월 12일(월)~16일(금)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남사
- 5월 14일(수) 서품 2년 차 사제 연수 / 성애펜터
- 5월 19일(월)~21일(수)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여사
- 5월 21일(수) 해밀 가족 모임 / 교정사목 센터
- 5월 21일(수)~23일(금)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보호자 교육 / 서울북부보호관찰소
- 5월 21일(수)~23일(금)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인천구치소 남사
- 5월 26일(월)~30일(금)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서울동부구치소 남사
- 5월 29일(목)~31일(토) 각 교정시설 대표 봉사자 연수

※ 5월 1일(목) '근로자의 날'로 인해 **사무실 휴무**입니다.



● 새로운 교정사목 가족을 소개합니다. (25/03/15~25/04/14)

2025년 3월~4월에는 강경신, 류재인, 송순기 페트라, 승글라라 글라라, 임효현 안젤라, 정지숙 올리바, 현진 소화 데레사, 서대문성당 강신숙 레아 외 76명, 성내동성당 강민정 안젤라 외 72명님께서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김지환, 민마바하, 백지현 레아, 이정우, 정영인, 한장희, 홍성원 스테파노, 서대문성당 고영권 아만도 외 39명, 성내동성당 강지령 베로니카 외 39명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후원 정보 변경 시 바로 연락주세요.

* 010-3732-5093 *

- 거래 은행 및 계좌번호를 변경하고 싶을 때
- 후원금액을 변경하고 싶을 때
-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 되었을 때

※ CMS 및 자동이체 결제일에 **잔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잔액부족으로 인한 미출금이 많이 발생하오니,
CMS 및 자동이체 결제일에 잔액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미납된 후원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장당 210원~240원 수수료 부과)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회원분들은 **010-3732-5093** 교정사목 휴대폰으로 문자 부탁드립니다.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